

‘아침으로 가는 길’을 일러준 이정표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③ 80년대 대학 신입생 교양서



4·19에서 87년 6월항쟁까지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의 ‘카운터 파트너’는 야당이 아니라 대학(생)이었다. 일단의 정치군인들이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할 때, 병력을 우선 배치하는 곳은 야당 당사가 아니라 대학 교정이었다. 협박으로 으르거나 돈으로 구워삶을 수도 없는 그들이었기에, 당국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학을 도시 외곽이나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권력자의

교육책이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다. 학생들의 투쟁수단이 화염병 혹은 돌맹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책’이었던 것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는 책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을 땐 눈에 안피게 읽으려고 애썼고, 다 읽은 책은 어딘가에 숨겼다. 그는 어쩌다가 책에서 뭔가를 중이대 배겨쓰기도 했지만 그것 역시 감추었다. (고리키의 《어머니》에서)”

어머니가 관찰한 아들 파벨 블라스코프의 모습이다. 파벨은 전에 없이 방바닥을 쓸고 침대를 청소하기도 한다.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런 행동은 파벨이 노동운동에 참가하면서 갖게 된 것이다. 파벨은 혁명 의식을 고취하는 책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80년대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들은 누구나 파벨이 되기를 강요받았다. 또한 기꺼이 파벨이 되려고 했다. 파벨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선배의 은밀한 귀뜸말-“너, 이 책 좀 읽어 볼래?”-과 함께 건네진, 길표지를 포장으로 감춘 책들을 읽으면 됐다. 이른바 신입생을 위한 ‘의식화’ 입문서로는 감성에 호소하는 문학·수기류가 대중을 이뤘다. 대학 ‘초년병’의 의식을 눈뜨게 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책들을 번역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청사, 1978)은 양심을 되찾고자 나치에 저항한 뮌헨 대학생들의 이야기다. 사람들에게 나치의 본질을 드러내고, 의식을 일깨우려는 ‘백장미단’의 수세적 저항은 그들의 선언문을 통해 표출된다. 결국 백장미단의 저항은 나치에게 발각되고, 단원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 책은 신군부에 의한 광주에서의 양민 학살을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에 비견되는 만행으로 인식시키면서,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는 학생들에게 비장감을 심어주었다.

80년대의 의식화를 이념편향이라 폄하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본 피상적인 관찰로 여겨진다. 의식화의 대의는 계급의식의 각성이라기보다는 휴머

니즘의 고양이라 해야 옳다. 철학자 무파리 리사꾸는 《현대의 휴머니즘》(폴빛, 1982)에서 ‘인류 휴머니즘’을 제창한다. 주어진 여건 아래서 인간의 생명·가치·교양·창조력을 존중하고 높이는 차원을 넘어,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회적 조건과 맞서 싸워 인간다움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파리 리사꾸는 백장미단의 행동주의를 현대 휴머니즘의 전형으로 높이 평가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린 인류 휴머니즘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동녘, 1982) 역시 휴머니즘의 관점으로 다가서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 책이다. 의식화 교재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책이 일반 독서대중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것도 소설에 흐르고 있는 휴머니즘 때문으로 보인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체제와 착한 어른 뿌루뚜가의 우정이 즐거움을 이루는 이 소설의 결말은 비극적이다. 착한 어른이 타고 가는 자동차가 도시고속철도 망가라치바와 충돌하는 장면에서 콧등이 시큰해지지 않는 독자는 감정이 꽤나 무딘 사람이다. ‘체제’는 만화가 이희재에 의해 동네 꼬마를 닮은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

“70년대 중반 원서를 통해 마르크스를 읽었다”는 70년대 초반 학번 소설가의 말처럼, 70년대에 사회과학이론을 습득하려면 원서를 탐독해야 했다. 이때 선진적인 활동가들



80년대 대학 ‘초년병’을 의식화시켰던 책들은 이제 ‘희미한 옛사람의 그림자’가 되고 말았다.

에 읽었던 책들이 80년대에 대거 번역되어 출간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변혁이론의 유입경로다. 일본을 경유한 서구의 혁명론이 젊은이들의 세계관을 형성시켰다.

소련문학의 소개도 처음에는 일어판 중역이 먼저 옮겨졌다. 《어머니》도 일어판을 텍스트로 한 번역본(석탑, 1985)이 먼저 나와 독자의 사랑을 받았고,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은누리, 1986) 역시 일어판 중역이 먼저 나왔다.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는 89년 일어판을 옮긴 것(남풍)과 러시아어에서 직접 옮긴 것이 거의 동시에 나왔다. 중역본이지만 남풍에서 펴낸 《무엇을 할 것인가》는 김남주 시인의 해설이 들어 있어 ‘특별한 인간’ 라흐메토프를 만나는 의미가 각별하다. 이 세권의 러시아소설 직역본은 모두 열린책들에서 펴냈다.

8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해외작가는 막심 고리키. 《어머니》 말고도 삼부작 자전소설 《어린 시절》 《세상 속으로》 《나의 대학》(이상 이론과실천) 등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이 속속 우리말 텍스트를 얻었다. 《이탈리아 이야기》 《고백》같은 작품은 두 곳 이상의 출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고리키의 문학과 사상은 1920~30년대의 우리 문단에 큰 영향을 끼쳤던 터라, 반세기만에 못물처럼 터진 ‘고리키 특수’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고리키 문학에 대한 우리 문학계의 발빠른 수용 현황은 《고리키와 조선문단》(좋은

책)이 잘 정리하고 있다.

사회·지식인·역사를 보는 관점

문학·수기류가 감성에 호소했다면 논리적인 기초이론서들은 이성에 기대어 과학적 사고의 토대를 다지는데 기여했다. 고등학생의 때를 벗는 일은 사회를 보는 시각의 정립에서 출발, 지식인됨을 자각한 다음 역사 의식의 습득으로 이어졌다.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새발, 1980)와 《사회과학입문》(청사, 1982) 같은 책은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심어줬다.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한마당, 1979)은 대학 1년생의 지적 호기심과 허영심을 동시에 자극하며 많이 읽혔다. 한완상 교수의 《민중과 지식인》(정우사, 1978) 또한 신도불이 지식인론으로 사랑을 받았다. 지식인과 지식기사의 대비 또는 '즉자적' 민중과 '대자적' 민중의 비교 설명 등, 먼저 읽은 사람이 아직 읽지 못한 이에게 침을 튀기며 설명했던 내용들의 출전이 바로 이 책이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유명한 구절을 담고 있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오늘날까지 신입생 필독서로 군림하고 있다. 이 책은 두개의 대표적인 번역 텍스트가 있는데, 8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학번은 탐구당 문고본을 통해서, 그 이후 학번은 청년사판을 통해 역사주의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 책은 입문서치고는 무척 까다로운 편이다. 당시의 학생들이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 궁금하지만, '예언적 지성'으로 이 책을 곱씹은 독자는 많지 않을 듯싶다. 이 책의 사실에 대한 냉철한 접근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차가웠으며, 조만간 불어닥칠 이념의 몰락을 담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개설한 입문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새내기에게 권장되었는데, 이는 90년대 성담론의 폭발을 알려주는 80년대가 배태한 '씨앗' 인지도 모른다.

'아침으로 가는 길'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유시민씨의 향소이유서의 끝구절을 장식한 네크라스프의 시구는 80년대 젊은이들의 변뇌를 상징한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서울대 외부인 감금 폭행사건'이라는 두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아침으로 가는 길》(학민사, 1986)에 부록으로 수록된 이 향소이유서는 현실의 모순을 보고 '꿈'을 버려야 했던 한 젊은이의 진실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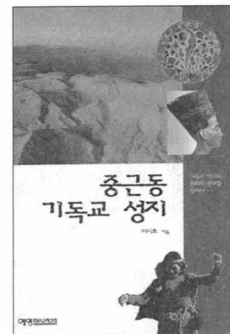
'유신만이 살 길'이라는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의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었던 순진한 학생은 머리채를 잡고 끌려가는 여학생을 보고 나서는 모든 사물이 다르게 비치기 시작했다. 교정에 상주하는 전경의 놀이터로 전략한 잔디밭의 흉물스런 흙집이 가슴 속 묵은 상처로 자리잡고, 급기야는 자신의 한 달치 하숙비가 열여섯살 여공의 월급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그를 몹시 부끄럽게 만든다.

학생운동에 투신, 두번의 옥고를 치렀던 것은 그가 가장 열렬한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 책을 통해 글솜씨를 한껏 발휘한 유시민씨는 88년 펴낸 《거꾸로 읽는 세계사》(푸른나무)를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또 이 해에 《창작과비평》에 중편 〈달〉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정식 데뷔한다.

《아침으로 가는 길》은 서대문경찰서에 지형이 압수되는 고초의 와중에도 1만부나 팔려나갔다. 이 책의 '사건'에 연루된 세 학생의 인생유전은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이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 이전'을 했는지 잘 보여준다. 유시민씨는 저술가로 출판계에서 활약하다 독일로 유학,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이정우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중이고, 백태웅씨는 '사노맹'의 또 다른 '수괴'로 복역중이다.

대학가의 독서열기는 87년 6월항쟁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더니, 90년대 들어서는 급전직하한다. 학생운동의 '보급기지'였던 학교 앞 사회과학전문서점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고, 이제 남아 있는 서점들도 헛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새나기를 위한 교양서 목록도 고전 위주로 회귀했다. 여기에 거명한 책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인 셈이다.

— 최성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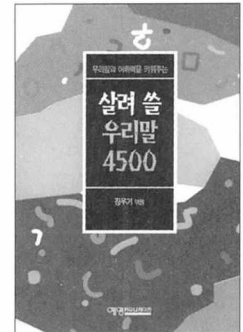
중근동 기독교 성지
이시호 지음/크라운판/684면/16,000원
현직 외교관이 쓴 국내 최초의 중근동 역사문화기행서. 저자가 6년에 걸쳐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레바논 등 6개국을 답사하고, 현지 자료와 학술적 문헌을 바탕으로 쓴 역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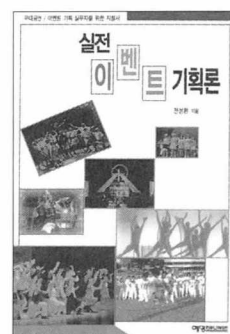
사랑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태화섬솜는집 엮음/신국판/235면/6,000원
이 책은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태화섬솜는집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사회복지사, 관련전문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이 직접 쓴 글을 모은 것이다.



글힘돌음
정우기 지음/신국판/258면/6,000원
알기 쉬운 문제풀이식 문장력 기르기. 이 책은 여러 예문을 읽으면서 글을 보는 눈이 열리고, 글을 쓰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글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만들었다.



살려 쓸 우리말 4500
정우기 지음/4·6판/320면/6,500원
우리말의 어휘력을 키워주는 우리말 사전. 이 책은 사전에 있는 낱말들 가운데 순수한 우리말과 북한말을 가려뽑아 체계 있게 정리한 것이다.



실전 이벤트 기획론
전성환 지음/4·6배판/202면/10,000원
인기적중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벤트 프로듀서들이 실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절차와 서면양식 등이 담겨 있는 이벤트 실무 지침서이다.



부부 커뮤니케이션
가까다니 마사키 지음/신국판/160면/3,800원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부가 알아야 할 성격적 가르침이 담겨있는 필독서. 자녀양육론 및 사랑전달법 등을 진솔하게 제시하고 있다.